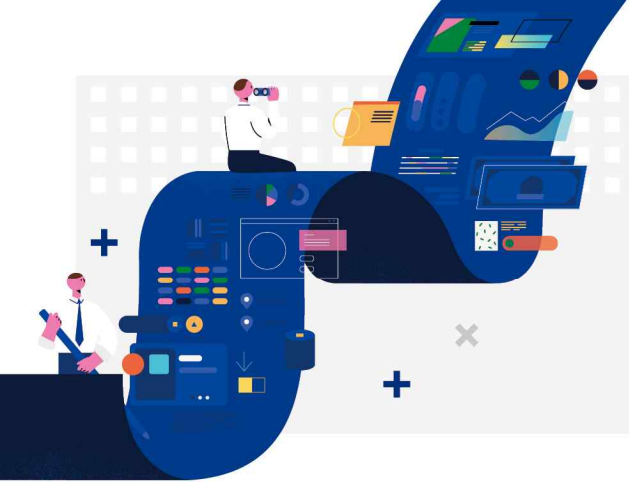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1호 (2024.06.07)

- 이슈
(경제) 인천시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1호 (2024.06.07)

Cotents

I. 이 슈

(경제) 인천시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교육) 교육부, 지역 맞춤형 인재 기르는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 발표 11

(금융) 보험업계, 잠자고 있는 숨은보험금 주인 찾기위해 노력 11

(산업) 정부, EU 수출 중소기업 대상 탄소국경조정세 대응 지원 추진 12

(안전) 해수부, 세계 주요 7개 해역의 해적 피해 위험도 매주 공개 12

(복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 5월 29일부터 신청·접수 진행 13

(노동)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첫 시행, 6월 24일부터 원서 접수 13

(환경) 6월 한 달간 녹색제품 구매 시 할인 및 증정품 제공 14

(금융)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한 '개인투자용 국채' 6월부터 발행 시작 14

연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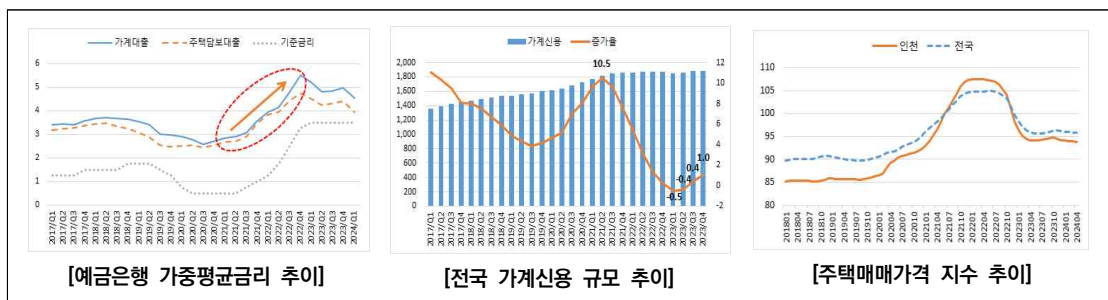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류동훈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경제 > 인천시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가계부채 #취약계층 #고금리 #DSR #연체율 #위험성

- 최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안정화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 △자산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
 - '21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하던 전국 가계부채 규모는 '2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¹⁾, 경기 악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증가 폭이 축소되었고, '23년 초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 재차 반등하며 상승세 유지
 - '24년 하반기로 예상되던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미국 내 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되고 있어 국내 경제는 당분간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전망 우세
 - 한편 최근 주택매매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부동산 수익성 악화 및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 상환 곤란 등 가계 부문에 고위험 차주가 발생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금융시스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이에 최근 인천시 가계부채의 현황 및 특징과 더불어 △고금리 △고물가 △주택시장 위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차주의 가계부채 상환 여력에 대한 잠재리스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본 고에서는 KCB의 신용융합정보 집계자료²⁾를 활용하여 인천시 가계의 부채 구성과 추이를 살펴보고, 연령, 소득, 신용점수 등 차주의 특성에 따른 가계부채의 현황을 분석
 - 또한 가계부채의 건전성 판단에 활용되는 DSR, LTI 등 상환능력 지표를 산출하여 차주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고, 상환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 차주를 정의하여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를 점검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참고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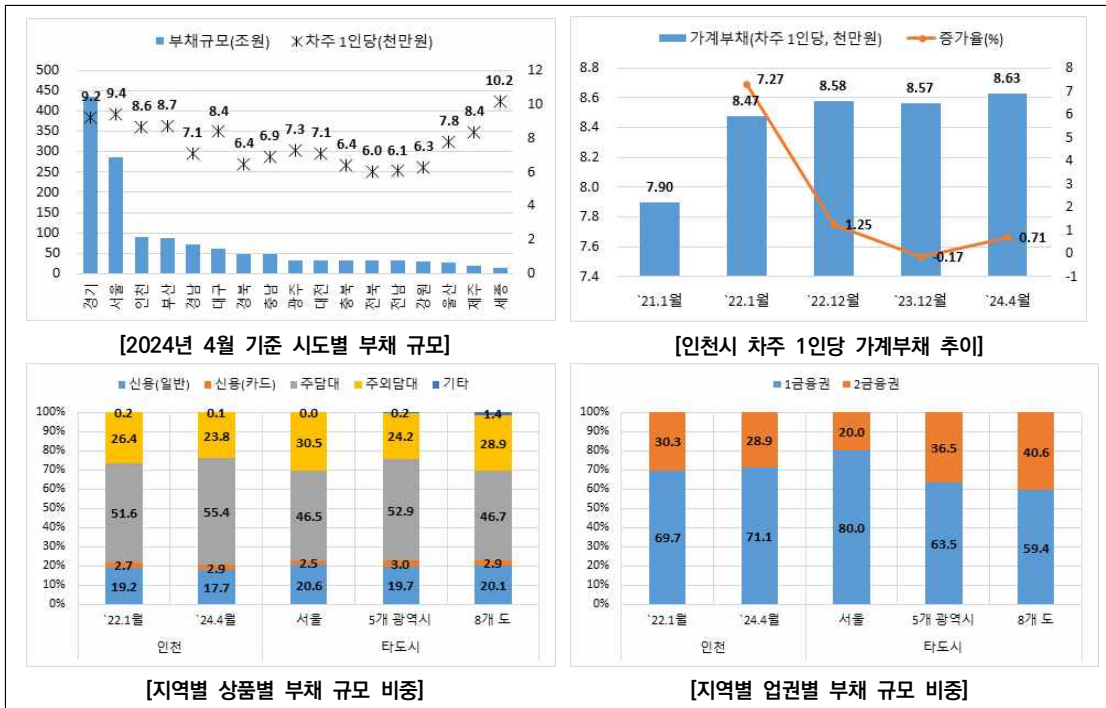
* 주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전국 금리·가계신용·주택매매가격 추이

- 1) 금융위원회는 '21년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22.7월까지 대출취급 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할 것을 발표했으며, '22.7월을 목표로 한 3단계 관리방안에 따르면 총대출액 1억 원 및 DSR 50%(은행 40%)를 초과하는 차입자의 신규 차입을 금지.
- 2)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시도별 신용융합정보 구매계약을 통해 동 자료를 동향 작성 및 연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KCB 자료는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대출 통계와 조사 방식, 포괄범위 등이 달라 통계 값에 차이가 존재.

○ 인천시 가계부채의 경우 ①타 시도 대비 높은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 ②최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③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중심이라는 3가지 특징을 보유했다

- 전국 시도별 부채 규모에 따르면 인천시의 가계대출 잔액은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차주 1인당 가계부채로 비교하면 전국에서 5번째 수준³⁾인 것으로 분석
 - 인천시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⁴⁾는 '22년 말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3년 말 기준 소폭(0.17%) 감소하였으나, '24년 4월 현재 '23년 말 대비 0.71% 증가한 8,627만 원으로 '22년 수준을 상회
- 인천시 가계대출의 상품별 비중을 살펴보면 '24년 4월 기준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확인되며, △주택 외 담보대출(26.4%) △일반 신용대출((19.2%) △카드 신용대출(2.7%) △기타(0.2%) 순
 - 인천의 '24년 4월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2년 1월 대비 3.8%p 증가한 55.4% 수준으로, △서울(46.5%) 5개 광역시(52.9%), 8개 도(46.7%) 평균보다 높은 수준
- '24년 4월 인천시 가계대출의 1금융권 비중은 '22년 1월보다 1.4%p 증가한 71.1%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⁵⁾인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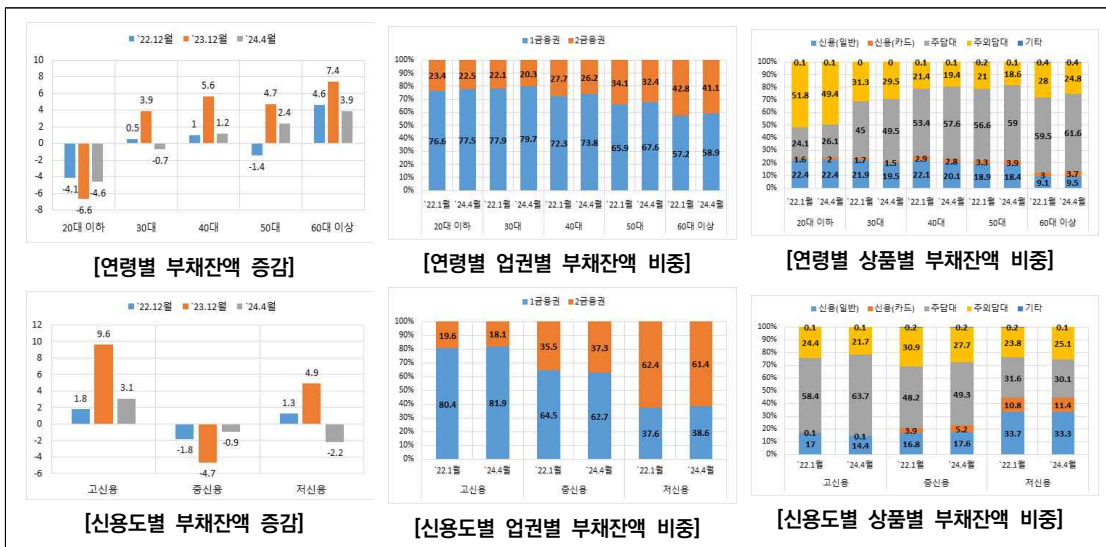
* 자료 : KCB 신용융합정보

* 주 : 품별 및 업권별 부채 규모의 5개 광역시 및 8개도의 값은 각 지역의 합산 값을 활용

[그림 2] 인천시 가계부채 추이 및 구성

- 3) 지역별 1인당 가계부채는 △세종(10.2천만 원) △서울(9.4천만 원) △경기(9.2천만 원) △부산(8.7천만 원) △인천(8.6천만 원) 순.
- 4) 본 고에서는 집계 인구 및 채무를 보유한 차주 구성에 따라 부채 규모 및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총부채 잔액을 차주 수로 나누어 차주 1인당 부채 규모를 산출하여 분석.
- 5) KCB 자료에 따르면 업권별 부채 규모의 경우, 수도권이거나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1금융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위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이용이 활발한 광주, 전남 등의 경우 2금융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 차주 특성에 따른 인천시 가계부채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2금융권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
 - 연령, 소득, 직종, 신용도 등 차주 특성⁶⁾에 따른 인천시 가계부채 증감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에서는 △60대 이상 △고신용 △저소득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부채잔액이 증가
 - '24년 4월 기준 인천시 가계부채는 '22년 1월 대비 6.6% 증가하였는데, 차주 특성별로는 △60대 이상(16.7%) △고신용(15.0%) △저소득(12.6%) △자영업(19.4%) 그룹에서의 증가율이 높고 △20대 이하(-14.5%) △중신용(-7.2%) △기타 직종(-19.3%) 그룹에서는 감소
 - △저연령 △고소득 △고신용 △임금 근로자의 경우 대출 잔액 중 1금융권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고연령·고신용일수록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 '22.1월에서 '24.4월까지 대출 잔액 변화를 살펴보면 차주 특성과 관계없이 대체로 1금융권 및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졌으나, 저소득·중신용 차주에서는 2금융권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저신용 그룹에서만 감소
 - 인천시는 ①소득이 불확실하거나 낮은 60대 이상 차주 ②저소득 차주 ③다중채무자⁷⁾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 차주 등의 가계부채 대출 잔액 규모 증가를 경계해야 할 필요
 - 일반적으로 2금융권 비중의 증가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저소득, 중·저신용 차주에 관한 모니터링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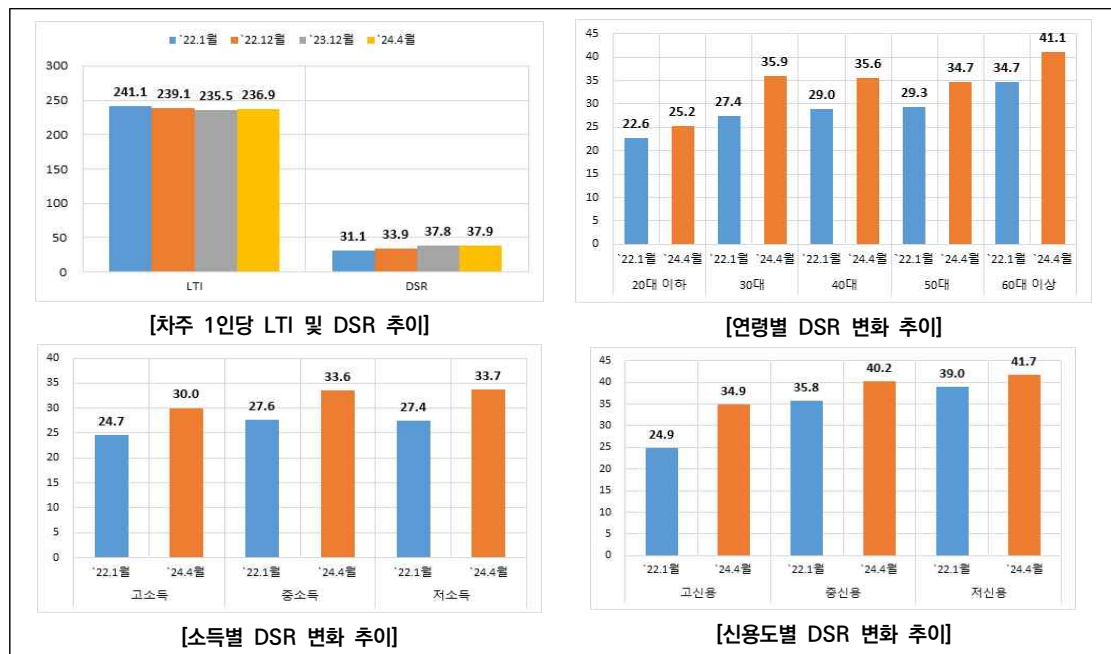


* 자료 : KCB 신용융합정보

[그림 3] 차주 특성 및 대출 특성별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 6) 소득 기준 구분은 △소득 상위 30% 이상(고소득) △30% 초과~70% 이하(중소득) △70% 미만(저소득)을 이용하였으며, 직종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주부 등 기타의 구분을 이용함. 한편 신용 기준 구분은 △900점 이상(고신용) △700 이상 899 이하(중신용) △699 이하(저신용)을 이용하였는데, KCB의 신용점수의 경우 상환 정보(연체 여부 등), 신용거래 기간, 채무 부담 정도(대출 및 카드), 신용정보 형태(거래업권 및 상품 등)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 7) '24.4월 기준 차주의 직종별 다중채무자 비중은 임금 근로자 28.8%, 자영업자 42.4%, 기타(무직/주부 등) 22.5% 수준.

- 인천시의 차주 1인당 소득 대비 부채 비율(Loan to Income Ratio, LTI)⁸⁾의 변화는 제한적이나, 고금리 여건 지속으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채 상환액 규모 확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⁹⁾이 증가세
 - 차주 1인당 LTI는 '23년 12월 기준 지난해 대비 5.7%p 감소한 235.5%로 개선되었으나, 최근 부채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되며 '24년 4월 기준 '23년 12월 대비 1.4%p 상승한 236.9%를 기록
 - 차주 1인당 DSR은 '22년 1월 31.1%에서 '24년 4월 37.9%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주가 고연령일수록, 저소득-저신용일수록 DSR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 '22년 1월에서 '24년 4월 연령별 DSR 증감을 살펴보면, 주택구입, 자녀혼인 등 생애주기적 사건이 발생하는 30대(8.5%p) 및 40대(6.6%p)와 더불어 소득이 감소하는 60대 이상 노년층(6.4%p)의 상환 부담이 증대
 - 같은 기간 소득수준별 및 신용도별 DSR 변화의 폭은 소득이 낮을수록(저소득 6.3%p), 신용도가 높을수록(고신용 10.0%p) 크게 나타나는 특징
 - 2021년 이후 상승한 기준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차주 1인당 DSR이 차주 특성과 상관없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주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상환 부담이 증대
 -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차주 LTI와 DSR을 산출하여 살펴본 결과, 인천시의 차주 1인당 LTI와 DSR의 추이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가계부채 리스크 판단에 주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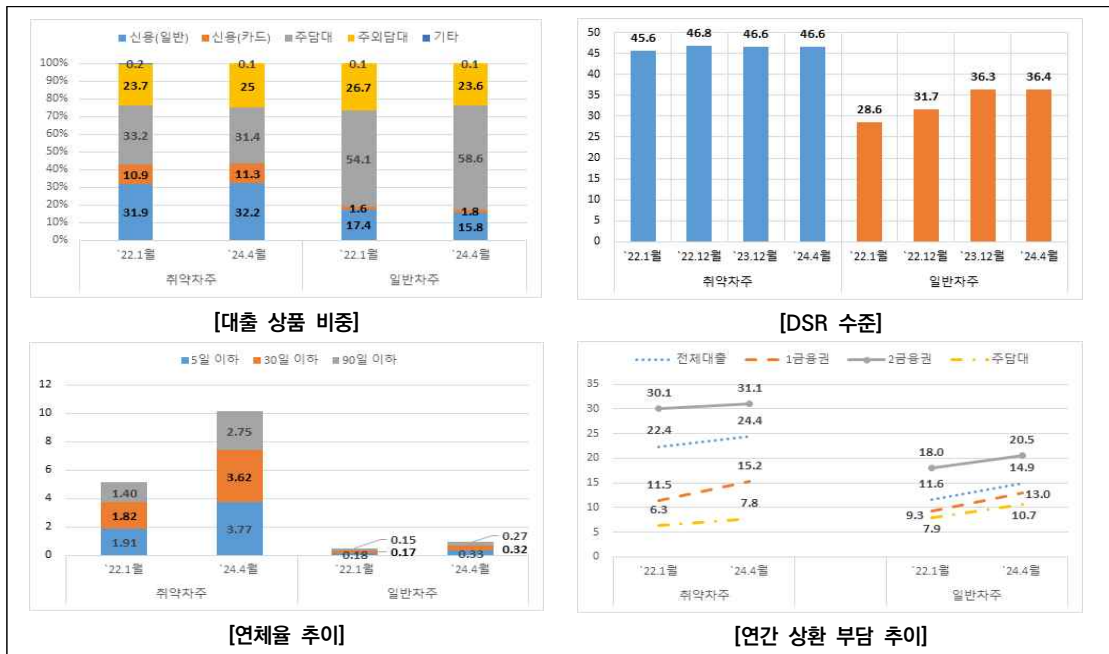
* 자료 : KCB 신용융합정보

[그림 4] 인천시 차주 특성별 LTI 및 DSR 추이

8) LTI(%) = (차주 1인당 대출 잔액/차주 1인당 연간 소득) × 100.

9) DSR(%) = (차주 1인당 연간 대출상환액/차주 1인당 연간 소득) × 100. 구독 자료의 한계로 인해 DSR의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다른 자료를 이용한 DSR 산출 시의 값과 다를 수 있음.

- 인천시 총대출잔액 대비 취약차주¹⁰⁾의 대출 잔액 비중은 전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취약차주의 경우 대출상환액이 높은 상황에서 이자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연체율이 상승세
 - '24년 4월 기준 인천시 취약차주 비중은 14.4%(전국 13.2%)로 전국에서 2번째, 취약차주의 대출 잔액 규모는 전국 대비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인천시 총 부채잔액 대비 취약차주 부채잔액 비율은 전국 대비 12위(11.6%)로 전국 시도 비율의 11.1%를 상회
 - 업권별 및 상품별 가계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취약차주는 일반차주에 비해 2금융권 대출 비중(57.6%) 및 일반 신용대출 비중(32.2%)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며, 대출 상품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31.4%로 일반차주 대비 27.2%p 낮은 수준
 - 일반차주의 DSR은 '22년 1월 28.6%에서 '24년 4월 36.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취약차주의 경우 일부 변동은 있으나 약 46%의 높은 수준을 유지
 - 취약차주의 '24년 4월 연체율은 '22년 1월 대비 5.01%p 증가한 총 10.13%¹¹⁾로 일반차주 대비 9.2%p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취약차주의 채권 부실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존재
 - 연간 상환해야 하는 대출액의 규모를 나타내는 부채잔액 대비 연간 상환액을 살펴보면 대체로 취약차주가 일반차주에 비해 높은 상환 부담을 지는데,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의 상환 부담이 크게 나타나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율이 일반차주 대비 낮게 형성



* 자료 : KCB 신용융합정보
 * 주 : DSR, 연체율, 상환율은 차주 1인을 기준을 산출

[그림 5] 취약차주와 일반차주의 가계부채 특성 비교

10) 본 고에서의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로 정의.
 11) 연체율 5일 이하 3.77%, 5일 초과 30일 이하 3.62%, 30일 초과 90일 이하 2.75%를 합산한 총 연체율을 의미.

- 인천시 가계부채는 규모 측면에서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역 내 가계부채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차주 상환여력 및 각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부채 규모 및 연체율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채무조정, 고용 연계 등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
 - 인천시 가계부채는 타 시도 대비 1금융권 및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금리변동 등 외부적 요인의 변동에도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으나, 차주 1인당 부채 규모가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
 - △60대 이상 △저소득 △자영업 차주 그룹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정 건전성의 취약성이 잠재적으로 확대될 수 가능성¹²⁾
 -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인천시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2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높은 채무상환 부담으로 인해 차주의 소비지출이 감소해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
 - 가계부채 모니터링 시에는 가계부채 건전성을 파악하는 미시적 지표를 활용하여 인천시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함께 고령층, 영세 자영업 등 차주 특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연체율 등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
 - 특히 고령층, 영세 자영업 등의 취약계층은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부실화가 발생하더라도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세세한 관심이 요구
 - 인천시 가계부채는 타 시도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부동산 및 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
 - 한편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채무조정과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인천시는 취약계층에 알맞은 채무조정과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을 포괄하도록 '채무조정 지원사업' 강화하여 부채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
 - 인천시는 '18년부터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이 어려운 차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채무조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¹³⁾ 지원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채무조정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
 - '24년 1월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¹⁴⁾을 통해 차주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활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인천시의 채무 조정 제도를 개선할 필요

12)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소득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영업 차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금리 및 자산가치 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존재

1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채무조정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상담 참여자 17,141명 중 2,583명(약 15.1%)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

14) 금융위와 고용부는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적절한 채무조정과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제공 중.

건설 > 건설15) 및 주택시장 동향


#건설수주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기성 #주택허가 #미분양

- **(전국건설)** 2024년 4월 국내 건설시장은 선·후행 지표가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비 증가하였으나, 선행지표의 기저효과와 동행지표의 증가세 둔화를 고려했을 때 당분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수주·허가)** 건설수주액 및 건축인허가 면적이 전년동월비 증가로 반전하였으나 지난해 건설경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건설경기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
 - 4월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건설 수주 부진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공공수주가 24.2%, 민간수주가 51.8% 증가함에 따라, 수주 총액 역시 전년동월대비 41.9% 증가한 1,356.2백억 원을 기록
 - 건축인허가 물량 역시 전년동월대비 4.0%, 전월대비 3.9% 증가한 10,784천m² 수준으로, 2023년 3월부터 지속된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반전
 - **(착공·기성)** 건축착공 면적은 '23년 하반기부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기성액은 증가세가 둔화
 -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6.8%, 전월대비 52.5% 증가한 7,783천m² 수준으로 2023년 7월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보합세를 유지
 - 4월 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2.5%, 전월대비 0.1% 증가한 1,490.0백억 원 수준을 기록했으나, 수주·허가·착공 등 선행지표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향후 추세가 불확실
- **(인천건설)** 2024년 4월 기준 인천은 건설수주액 및 건축허가 면적, 건축착공 면적이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비 증가하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에 돌입
 - **(수주·허가)** 인천지역의 건설수주액이 전년동월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4년 들어 3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세를 보이던 건축허가 역시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 반전
 - 인천 건설수주는 공공 및 민간 수주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82.9%, 전월대비 198.0% 증가한 132.8백억 원을 달성하며, 4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수주액 증가가 지속
 - '24년 4월 인천의 건축허가 면적은 전월대비 262.6%,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한 798천m² 수준으로, 3개월 만에 전년동월비 증가 반전
 - **(착공)** 인천의 건축착공 면적은 전월대비 65.8%, 전년동월대비 73.8% 증가한 841천m² 수준으로, '24년 11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

15) 건설산업 시장 구분 시 공공부문은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를, 민간부문은 발주자가 민간기관 또는 민자사업이나 국내 외국기관인 경우를 의미함.

[표 1] 건설산업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단위 : 백억 원, %)

지역	구분	'23.09	'23.10	'23.11	'23.12	'24.01	'24.02	'24.03	'24.04
전국	수주액 (증감률)	1,400.2 (-35.3)	1,425.1 (42.3)	1,261.1 (-19.6)	3,359.3 (42.7)	1,121.0 (-39.3)	1,075.4 (-4.7)	1,283.0 (10.2)	1,356.2 (41.9)
	기성액 (증감률)	1,462.3 (13.8)	1,449.5 (6.1)	1,522.0 (4.4)	1,779.8 (-0.5)	1,456.8 (19.5)	1,311.7 (2.9)	1,490.0 (-1.7)	1,490.9 (2.5)
인천	수주액 (증감률)	54.9 (-12.8)	68.3 (171.2)	108.7 (83.5)	109.8 (-10.1)	91.9 (214.0)	115.1 (121.7)	44.6 (57.6)	132.8 (182.9)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 : 건설수주액 및 기성액은 최근 연도에 진행된 '건설업조사'에 근거하여 각각 총기성액의 54%, 50%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 선정하여 작성된 정보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건축허가 및 착공은 연면적(m²)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축은 전국 기준, 우축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건축 인허가 및 착공 현황(2024.04)

- **(전국주택)** 2024년 4월 기준 전국 주택시장은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감소세와 미분양 주택 증가세 지속되며,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추세
 - **(허가)** 2024년 4월 국내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8.1% 증가, 전년동월대비 15.9% 감소한 27,924호 수준으로, 인허가 물량 감소세가 지속¹⁶⁾
 - 공공부문의 인허가 수가 반등하며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이 전년동월대비 19.2% 감소하는 등 3개월 연속 감소하여 총 인허가 물량이 감소
 - **(미분양)**¹⁷⁾ 2024년 4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전월대비 10.8% 증가,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한 71,997호를 기록하며, '23년 11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

16) 주택의 경우 공급(입주)까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17) 통계청 및 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미분양자료는 공공부문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자료가 더해지면 더욱 증가할 가능성.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역시 전월대비 6.3%, 전년동월대비 48.8% 증가한 12,968호로, 2022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인천주택)** 민간부문의 주택 건설 인허가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
- **(허가)** 인천의 2024년 4월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1,130.8% 증가, 전년동월대비 21.6% 감소한 1,477호 수준으로, 4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세
 - 인천시 주택 인허가의 경우 계절에 따라 등락 폭이 큰 편이긴 하나 2022년 이후 4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전년동월비 감소
 - **(미분양)** 2024년 4월 인천의 미분양주택은 전월대비 59.6%, 전년동월대비 38.7% 증가한 4,260호로, '23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

[표 3]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및 미분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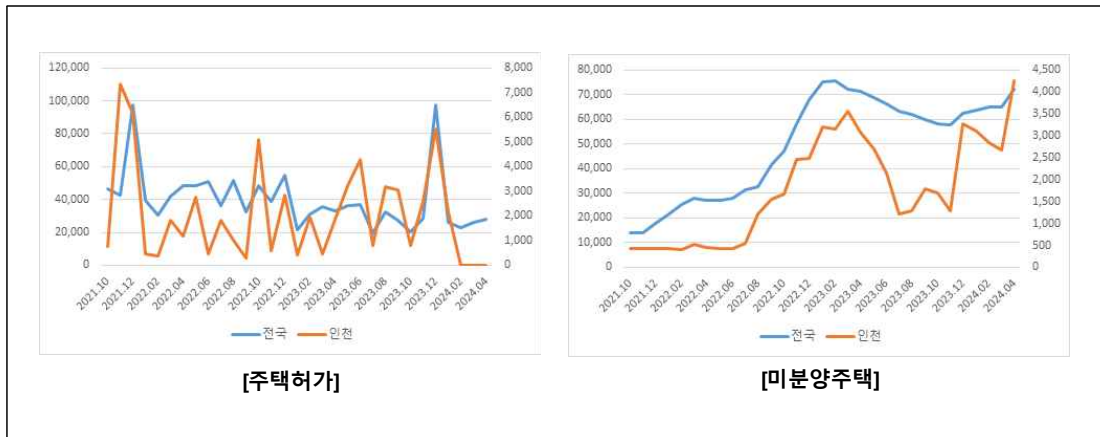
(단위 : 호, %)

항목		'24.01	'24.02	'24.03 (p)	'24.04 (p)	'23.04	전월비	전년 동월비
허가	공공	422	92	122	1,849	938	1,415.6	97.1
	민간	25,388	22,820	25,714	26,075	32,263	1.4	-19.2
미분양	민간	63,755	64,874	64,964	71,997	71,365	10.8	0.9
	(준공후)	11,363	11,867	12,194	12,968	8,716	6.3	48.8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2 : 주택허가 통계는 월별 누계액 자료에서 전월 자료를 제한 각 달의 수치를 산출하여 이용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2] 주택 건설인허가 및 미분양 현황(2024.04)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4.04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17.6	18.7	97.3	16.4	146.3	-19.0	143.5	28.4	146.6	34.1	137.0	-19.5
자동차	137.8	3.4	134.2	2.9	120.6	3.5	130.2	-7.9	117.4	-15.2	129.9	-26.5
기계장비	106.2	4.6	104.5	-0.1	139.0	-8.3	220.8	50.8	198.8	30.4	162.5	-27.3
바이오-의약	141.7	17.2	126.2	8.4	-	-	207.2	55.3	90.6	30.9	-	-
바이오-화장품	92.3	2.7	96.2	5.5	100.4	-4.9	120.0	11.4	110.0	5.7	100.3	3.5
건설 수주액 (억원)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29,279	24.2	105,767	51.8	600	240.0	12,677	183.9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3 : 통계청 계절조정으로 인해 2024년 1월 발표 자료부터 값이 수정되었으며,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교육

교육부, 지역 맞춤형 인재 기르는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 교육부가 지역에서 교육 후 취업-정주를 이어가는 지역 완결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

- *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및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연합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체제
- 금번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전략 산업 연계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생의 지역 취업을 및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제출·평가하여 선정
-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최대 45억 원 재정 지원과 함께 학교별 자문단을 구성해 연합체 주체 간 협력모델을 체계화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총 35개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통해 지역 교육혁명을 지원할 예정
- 각 지역 교육청은 선정 고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교사 총원 △산학겸임교사 활용 △재정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학생 취업 △청년정책 연계 △정주 등을 지원

구분	분야	학교(지역)	구분	분야	학교
1	철도	용산철도고등학교(서울)	6	기업SW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충남)
2	반도체	인천반도체고등학교(인천)	7	치즈·바이오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전북)
3	항공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인천)	8	이차전지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경북)
4	방산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대전)	9	어선해기사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경남)
5	관광농업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강원)	10	항공우주	한림공업고등학교(제주)

금융

보험업계, 잠자고 있는 숨은보험금 주인 찾기위해 노력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3년에 이어 올해도 숨은보험금* 약 12조 1천억 원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7월부터 보험계약자·수익자에게 숨은 보험금에 대해 집중안내할 계획

- * '숨은보험금'이란 주소·연락처 변경, 보험계약 만기 사실 미인지 등으로 인해 보험금의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을 총칭
- 보험업계는 금융위 및 행안부와의 협조를 통해 7월 중 숨은보험금에 대한 당사자 개별 우편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병원·복지시설·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숨은보험금 조화·환급 방법에 대한 광고물을 게시할 계획
- 또한 보험업계는 누구나 손쉽게 △가입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중

#중소벤처기업부

○ 지난 5월 22일 중소기업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

- *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금번 지원방안은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수출 지원 △기업 대응력 강화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

구분	주요 내용
전략적 수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수출 1억 이상 대상) CBAM 전용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 인증특지원 등 전용 사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 지원 • (전체 기업 대상) CBAM 제도 관련 교육·연수 사업을 활용한 제도 특화과정 운영 및 CBAM 관계부처 전담조직(TF) 합동설명회 및 고객지원센터 지속 운영
탄소중립 대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24년 탄소중립 직접지원 기업 대상)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 설비 도입·배출량 관리 SW 보급 연계 지원
탄소중립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탄소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 확대·구축 • 국가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추진 • 중기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해적 피해 취약 지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공개하며 관련 업계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진행

- 해수부가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세계 주요 7개 해역의 해적 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공개
 - 이는 그간 해수부의 해적 피해 위험해역 지정 및 무장요원 승선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 국내 선박의 해적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해적 피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국내 수출·물류 업계의 해적 피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
- ‘해적위험지수’는 해적 피해 위험도에 따라 ‘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의 4단계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되며, 위험 단계 및 권고사항에 대한 정보는 매주 갱신하여 공개할 예정
 - 각 위험 단계별 선박 조치 권고사항에는 △비상연락망 확보 △통신장비 운용상태 점검 △주기적 위치·현황 보고 △침입 방지 기기 설치 △경보 발령 해역 진입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상위단계 경보 발령 시 하위단계의 선박 조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안전조치를 수행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비용을 위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5월 29일부터 시작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비용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지원
 -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세대원 연령 △장애 여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
 - 금년도 사업은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를 지난해 대비 2만 원 상향한 세대 평균 36.7만 원으로 지원하고, 바우처 사용 기한도 한 달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
 - * (하절기) 평균 5.3만 원, 7월 1일~9월 30일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 원, 10월 1일~5월 25일 사용
 -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상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또한 산자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도 안내 및 사용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 올해 8월 처음 시행될 예정
 - 지난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해당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였으며, 올 8월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진행할 예정임을 발표
 - 동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반려동물 관련 이론) 및 2차 실기시험(반려동물 지도 능력)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24년에는 2급 시험만 진행한 이후 ‘25년부터는 1·2급 시험을 모두 시행할 계획
 - 자격시험의 일정 및 자격, 원서접수·증빙자료 등 상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과 농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등급	시험구분	공고 및 원서접수	시험일시	시험장
2급	1차(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공고 : '24.05.24(금) • 응시원서 접수 : '24.06.24(월) 10시 ~ 07.12(금) 14시 	'24.08.24(토) 14:00~16:00 (입실 마감 13:00)	전국 6개 지역 중 선택 가능
	2차(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지('24.09) 	'24.10~11월 예정	

#환경부

- 환경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가정과 지구를 지키는 녹색소비’를 주제로 2024년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할 계획
 - * 녹색소비주간은 녹색소비·생산의 유도를 통해 녹색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22년부터 개최되는 연례행사
 - 금번 행사에는 △유통사(73개) △녹색제품 생산자(7개) △카드사(4개) △은행사(4개) △전국 녹색구매지원센터(9개) 등 97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
 - 행사 참여 기업은 자체적으로 계획한 기간(1주~4주) 동안 △녹색제품* 할인 △카드 포인트 적립 △1+1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
 - *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 등을 인증받은 제품을 의미
 - 녹색소비주간 동안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온라인) 또는 1+1 증정(오프라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린카드 제휴유통사에서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등을 구매·결제 시 최대 1만 점의 에코머니 포인트를 특별 적립하는 등의 혜택을 마련
 - 녹색소비주간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기획재정부

- 지난 '23년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개인투자용 국채’가 6월부터 발행을 시작
 - ‘개인투자용 국채’란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법령 개정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올 6월부터 첫 발행
 -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웹사이트·모바일 앱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
 - 동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매입액 기준 총 2억 원 한도로 이자소득 분리과세(14%)가 적용될 예정
 - 구매 국채는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며,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가산금리·연복리·분리과세 혜택은 미적용
 - 정부는 6월 2,00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총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6월 발행 국채의 청약은 6월 13일(목)~17일(월) 중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 가능
 - 6월 발행 국채의 만기 기간, 금리 등은 기재부의 “개인투자용 국채 6월 발행 계획” 참고

참고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2.06~2023.12.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돕는다”, 2024.03.06.
-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2024.01.29.
- 한국은행, 「부산지역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점검」, 2022.07.27.
- 코리아크레딧부부르(KCB), ‘신용융합정보 집계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및 ‘가계신용(분기)’.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1.10.2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2024.01.24.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금리 상승에 따른 DSR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2024.05.18.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및 ‘주택건설실적통계’.
- 한국주택협회,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 교육부, 2024.05.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숨은보험금’ 12조 1000억원…확인하고 꼭 찾아가세요”, 금융위원회, 2024.05.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U 수출 중소기업 ‘탄소세’ 대응 지원…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중소기업부, 2024.05.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적 출몰 지역은 어디?…해수부, ‘해적위험지수’ 매주 공개”, 해양수산부, 2024.05.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덜다…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2024.05.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8월 24일 필기”, 농림축산식품부, 2024.05.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녹색제품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 또는 1+1 증정”, 환경부, 2024.05.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기획재정부, 2024.05.30.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1호(2024.06.07)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4년 06월 07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